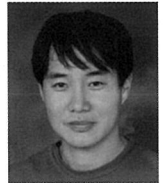


약육강식은 부적절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흔히 동물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한다. 약자는 먹고 강자는 먹는다는 지극히 잔인하고 냉혹한 용어이다. 때문에 나는 '약자는 사라지고 강자는 남는다.'는 식의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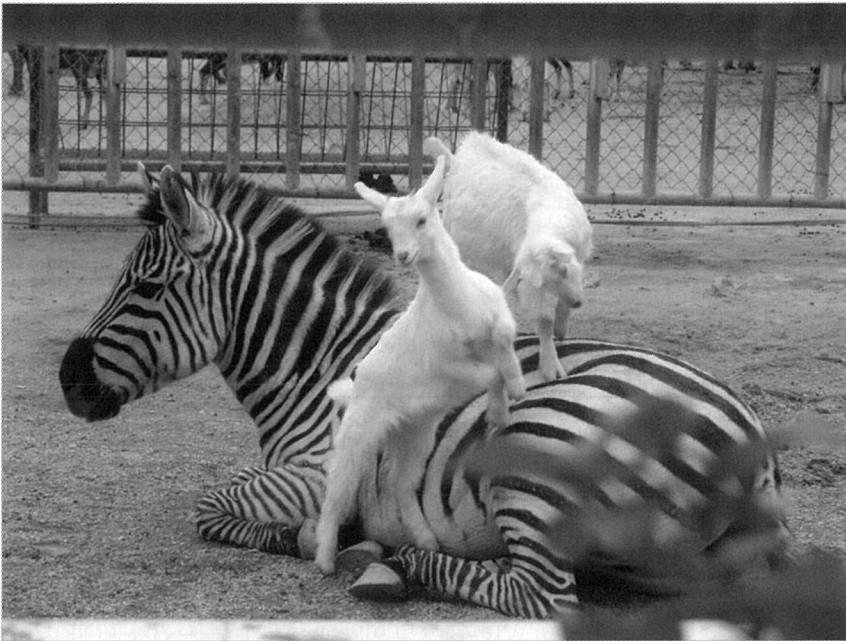
이런 현상은 비단 동물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식물들도 '천이'라는 과정을 거쳐 소나무와 참나무 같은 우점종만이 숲의 지배자가 되며,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나오는 독한 물질로 인해 그 흔한 잡풀조차 자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숲에서 좋다고 호흡하는 '피톤치드' 같은 물질도 알고 보면 식물들의 전쟁 무기인 셈이다.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 없이 나타난다. 유산균이 차지한 발효식품에는 부패균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균조차 접근할 수 없다. 만일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장에 유산균 저장창고를 가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병원균의 침습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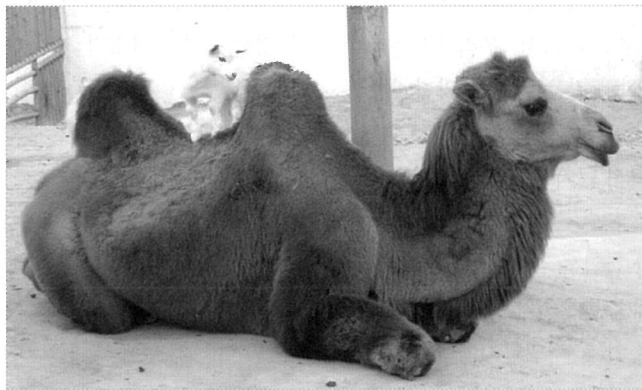
우리가 즐기는 알코올이나 항생제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로 강자가 되기 위해 내놓는 전쟁(화학전) 무기인 것이다. 단지 차이라면 동물처럼 손과 발을 이용해 직접 싸울 수 없다는 것뿐이다.

만약 세상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는 세상이 되 버릴 것이고, 날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제대로 살아 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보편적이라는 이 법칙이 알고 보면 광대한 생물현상 중 극히 일부 분이기 때문에 우린 안심하고 생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어 이종 간의 사랑으로 라이거나 타 이곤 같은 이종의 핏줄이 섞인 새끼를 생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것도 약육강식과는 상충된 예들이며, 우리 동물원에서도 형제 중에 유난히 작고 병약한 막내 동생을 둔 호랑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픈 동물들은 성질도 사나워져서 먹잇감이 들어오면 이 막내 동생이 다른 형제들은 얼씬도 못하게 으르렁 거린다. 그러면 형제들은 모른 척 하고 슬슬 피해주는 척을 했다. 그러다 그 동생이 질병말기에 이르자 어느 날, 보다 못한 형제들이 그의 숨을 끊어주었는데 나는 이것이 안락사였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마치 이 용어가 동물의 전부인 양 수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반론이 가능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동물들 새끼 키우는 것을 들 수 있다. 새끼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약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약육강식이라면 예외 없이 새끼들이 치이고 먹히고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예들을 보았을 때 예누리 없는 식물이나 미생물들보다 동물계가 훨씬 약육강식과는 동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 때문에 생물교과서에 비판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호전적인 이런 용어들도 이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미 진화론도 상당부분 수정

이 불가피하고 어차피 생물현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이론만으로 규정짓기에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생물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fin~

엄격한 위계사회인 원숭이 사회에서 새끼들은 우두머리의 머리를 밟고서 먹이를 맨 먼저 볼에 잔뜩 집어넣어도 결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새끼를 한 번 안아보려고 서로 싸움을 벌이기조차 한다. 동종 간에 그런 모습이야 자기들 새끼니 그렇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종을 섞어놓아도 보통 새끼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는 집단 보호 받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다.

이 불가피하고 어차피 생물현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이론만으로 규정짓기에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생물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fin~

여러 초식동물들이 섞여 사는 초식동물사회에서 흑염소 새끼 한 마리가 치열한 전쟁터인 먹이통 한가운데 태연히 누워지는 모습은 정말 전쟁터에 피어난 한 떨기 장미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